

가짜와 진짜



김 종 한

- 84년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 국립공원협회 회원
- 현 사무기기 자영업

이 세상은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했다. 그런데, 그 전문가의 안목을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았다. 어떤 것의 진위를 판별해야 할 때, 그동안 눈에 익었던 한면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이 낯설게 보이면 그건 가짜라고 여겨도 무방했다. 그랬다. 꽤 오래전, 중학교 시절 일이었다. 당시 “쌍마”나 “빅스톤”이라는 외제 청바지가 유행했고, 그만큼 시중엔 가짜도 많이 나돌고 있었다. 난 어느 순간부터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이미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이나 누구 친척들이 그 계통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 우연히 터득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다. 청바지 단추의 안쪽, 천에 박음질한 면이 기계로 정교하게 봉합한 것이냐, 아니면 어설피게 손으로 두드려 박은 것이냐 그 여부만 확인하면 자연

히 그 청바지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한번은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남대문 시장엘 가서 청바지를 골라 줄 때의 얘기였다. 험상궂게 생긴 주인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계속해서 여섯 벌 짜의 가짜 청바지를 내 앞에 내밀었다. 당시 남대문 시장은 호객 행위가 절정에 달했고, 나이 어린 손님들에게는 주인이 폭언과 협박까지도 서슴치 않았기에 친구는 옆에서 잔뜩 주눅이 들어 웬만하면 그냥 사자는 눈짓을 내게 보내고 있었다.

“어린 놈이 의심이 많기도 하지. 그래, 이것도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대답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면서 받아 쿨 청바지의 안쪽, 조잡하게 봉합한 단추부분을 다시 한번 힐끔 확인했다. 뭔가 곧 불상사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 분위기에, 친구는 우려의 눈초리로 주인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불안해 했다. 갑자기 주인의 태도가 싹 누그러지더니,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했다.

“야, 빅스톤 진짜 하나만 갖다줘. 어쭙잖게, 아주 어린 놈이 보통이 아니야! 청바지 골르는 전문가야, 전문가…”

전화를 끊은 주인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나의 위 아래를 한번씩 훑어보았고, 친구역시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하물며, 내나이 사십대 초반인 지금까지도 국산 청바지의 예의 그 단추 처리 기술은 조잡하기 짝이 없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나 로열티의 제공으로, 원단이나 스티커는 외제 유명제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어찌보면 진실은 언제나 간단한 데서 출발하고 있었다. ▲▲